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주님 세례 축일

2025년 1월 12일 / 제672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석근수 제1독서 이주일 제2독서 한수현 / 입당 1 봉헌 513, 211 성체 175, 154 파견 6
Narrator Hawlan Ng 1st Reader Jun Vicencio 2nd Reader Gabriel Lee

입당송 | 마태 3,16-17 참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 이사 42,1-4.6-7 <또는 40,1-5.9-11>

화답송 | 시편 29(28),1ㄱ과 2.3ㄱㄷ과 4.3ㄴ과 9ㄷ-10 (◎ 11ㄴ)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 사도 10,34-38 <또는 티토 2,11-14; 3,4-7>

복음환호송 |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 요한 1,32.34 참조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1월 12일	주일학교 YES	Fr. Jim
1월 19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1월 26일	주일학교 NO	Fr. Gus
2월 2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흠 요한사도, 배비인 알비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최고의 선물

사랑의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성탄 시기 동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되새기는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사람이 되어 오신 성탄의 신비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예언자는 “여기엔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42,1)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실현될 것을 세례자 요한 또한 예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

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루카 3,16 참조) 세례자 요한이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와 증인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에 자기 삶에서 일어난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이 일치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합시다.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명동대성당 주임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3. 인간은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이성의 타고난 빛” 클/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어쩌다 한 번씩 신자분들과 교리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아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규정 에 대한 질문처럼 ‘이건 이겁니다’라고 간단하게 답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라고 정리한 분에게 ‘그건 이런 점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라며 새로운 혼란을 안겨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인간은 하느님의 신비에 대 해 이해할 수 없으니 그저 믿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분명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비잔틴 전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감사기도) 분이시며 인간의 말 은 언제나 하느님의 신비에 미치지 못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2항).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간이 하느님께 대한 신비를 이해해 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말한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 을 통해 발전시켜 온 교리 내용들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하느님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앙의 진리 들을 세속 학문들의 기초 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자 한 신학대전을 집필하다가 말년에 자신이 쓴 것은 모두 지푸라기처럼 보인다고 중단했다지만 그 건 그만큼 하느님을 이해해 보고자 노력한 뒤에야 만나게 되는 경지일 겁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성

의 타고난 빛을 통해서 피조물로부터 출발하여 만물 의 근원이며 목적이신 하느님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가르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6항).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 주시게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찾아오 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모습대로 창조되어 그분을 알고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그 분을 찾고 있는 존재이기에(가톨릭 교회 교리서, 31 항) 자신의 능력으로 인격적인 하느님의 존재와 그 분께 대한 신비들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같이 우리들 둘러 썬 피조물들과 세계에 대한 탐구, 자유와 양심의 소 리나 무한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 등 인간에 대한 탐구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 우리 영 혼의 근원이신 분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2-33항)

과학의 발전과 함께 세계에 대한 인류의 이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인공지능처럼 새로운 기술 의 발전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더 욱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실험 가능한 지식만을 의미있다고 주장하는 우리 시대 의 정신은 하느님께 대한 지식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세계와 인간에 대한 탐구가 중요해 지면 중요해질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근원에 자리한 하느님께 더욱 가까 이 다가가게 됩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SUSHI HANABI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 2025년 1월 주요 전례 일정

- 1월 12일(주일): 주님 세례 축일
- 1월 26일(주일): 설 합동 위령미사(오전 9시)
- 2월 2일(주일): 주님 봉헌 축일

■ 주일학교 개학

- 일시: 1월 12일(주일), 오전 9시 30분

■ 트라이밸리 재속프란치스코회 1월 월례모임

- 일시·장소: 1월 12일(주일)· RoomB
- 문의: 유인숙 요한나

■ 사랑의 모후 꾸리아 1월 월례모임

- 일시: 1월 12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각 브레시디움 간부

■ 요아킴·안나회 1월 정기모임

- 일시·장소: 1월 19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2시·Room A
- 2025년 첫 모임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설 합동 위령미사 일정 및 신청 안내

- 일시: 1월 26일(주일), 오전 9시(한·영 통합 미사)
- 신청: 1월 24일(금)까지 사무실(당일 생미사 봉헌 없음)

■ 주일학교 어린이·학생 새해 인사

- 1월 26일(주일) 설 합동 위령미사 중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이 본당 어른들께 세배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본당 기금 마련 1분기 공동구매

- 종목: 참기름, 들기름, 미역, 각종 곡류, 새우젓 등
- 접수: 1월 12일(주일) - 1월 20일(월)
- 전달: 2월 4일(화), 한국어 미사 전, 후
- 문의: 박경화 안젤라(408-318-7588)

■ 2025년 요셉회 굴파티

- 일시·장소: 1월 25일(토), 오후 1시 - 4시·성당 주차장
- 대상: 제철 굴을 즐기고 싶은 모든 신자
- 세부 내용 추후 공지

■ '소예언서' 온라인 강의 안내

- 기간: 2월 6일(목) - 5월 29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강사: 배미향 에밀리아 수녀님(가톨릭성서모임 서부 담당)
- 등록비: \$100(교재비 포함)
- 지불방법: Venmo @CBLMsolph (Mihyang Bae, 714-403-0010)
- ※ 메모란에 '트라이밸리 ○○○ (세례명)' 기입
- 문의: 임무영 알렉산드라(408-386-0656)

■ 2025년 새해 달력 배부

- 2025년 새해 달력을 반별로 배부합니다. (개별 수령은 사무실로 문의)

■ 주님 봉헌 축일 초 봉헌 및 축복

- 일시: 2월 2일(주일), 오전 9시 30분 주님 봉헌 축일 미사 중
- 내용: 1년 동안 사용할 제대 초와 가정용 기도초 축복
- 초 봉헌 및 구입 문의: 사무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317	\$638	\$6089.61	\$149.61	\$110	\$8304.22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 고문순(1), 김성치(1), 김지용(12-6/25), 김홍락(1), 남석훈(1), 남선숙(9-12/24), 성호승(1), 유근열(1,2), 임대정(1-12), 이연호(1,2), 이정미(7-12/24), 전은석(1), 한진규(1), 황준영(1)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 고문순(1), 김성치(1), 김홍락(1), 남석훈(1), 성호승(1), 유근열(1,2), 한진규(1)

- Bishop's Appeal

- 고문순(1), 김성치(1), 김홍락(1), 남석훈(1), 성호승(1), 유근열(1,2)

- 건축봉헌금 김지용, 두신, 주영근

- 천주성모마리아 대축일 \$1134

- 간식봉헌 김선기 시몬·민유진 제인

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교육을 받을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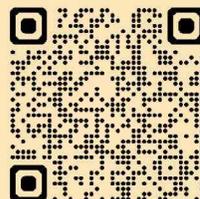
For the right to an education

이주민과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를 언제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for migrants, refugees, and those affected by war, that their right to an education, which is necessary to build a better world, might always be respected.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김시은 아녜스 가정 (마태4)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